

제9회 LIVING DOCUMENTS OF AMERICAN HISTORY AND DEMOCRACY(살아있는 미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서)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3명

2018년 4월 1일 경남 창원시 엘가커피에서

1. 조지 워싱턴:고별연설(1796) 계속

-법이 정치의 산물이라면 정치는 무엇의 산물인가. 정치는 상식의 산물이다. 상식이 정치를 결정한다. 상식은 문화와 같은 것들로 결정되는데, 종교와 도덕이 그 문화를 만들어낸다.

정치적 변명으로 이끄는 모든 자질과 관습 중에서 종교와 도덕은 없어서는 안 되는 지주가 됩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이 커다란 지주, 인간과 시민의 의무를 가장 확고하게 떠받치는 이 지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국의 공덕을 외치더라도, 공염불로 끝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도덕을 위한 교육이 보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차적 중요성을 지닌 목적으로서, 지식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제도를 촉진해야 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립정신, 개인 정신.

유럽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거나 혹은 거리가 매우 먼 일련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유럽의 어느 지역의 운명과 얽히게 함으로써 우리의 평화와 변명이 유럽의 야심, 경쟁, 이해관계, 일시적 기분 혹은 변덕에 맡겨둘게 할 것입니까?

2.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1835)

- 프랑스 귀족인 드 토크빌은 1831년 미국으로 파견되어 미국 전역을 9개월간 여행하면서 미국의 경제, 독특한 정치제도 등 미국 사회의 모든 면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의 저작인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 작가의 고찰에서는 찬미의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엄청난 격차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귀족인 드 토크빌은 도시의 궁핍과 노예의 고통 등 많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잭슨 대통령 당시 미국에 대한 그의 묘사는 신생 국가의 에너지와, 무엇보다,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포착하였다. 그로써 그의 저작은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3. 램프 왈도 에머슨: 자립(1841)

-램프 왈도 에머슨은 민주주의의 시인이자 19세기 중엽 미국의 지식생활을 고무한 초월주의 운동의 중심인물이었다. 초월주의는 '이성'을 인간 최고의 능력, 즉 지성과 감성의 완전한 발현을 통하여 아름다움과 진실을 이해하는 개인의 타고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 운동은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지식은 그룹에서 출발하였는데, 에머슨은 이 운동의 지적 지도자인 동시에 가장 탁월한 대변자였다.